

# 여수산단 석유화학 '반짝 호황'



여수국가산단이 석유화학업계의 반짝 호황을 맞아 야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여수시 제공>

## 저유가 따른 정제 마진폭 확대로 지난해 수익성 크게 개선 내년 이후 불확실...신소재·바이오 등 차세대산업 육성 시급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국제유가 급등, 중국수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던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업계가 지난해 각종 호재를 맞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등 반짝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시장 변화 등 내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향후 전망이 나오면서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에 따르면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기업 120곳의 지난해 2016년 생산액은 60조476억원, 수출은 258만7100만 달러(교용 2만211명)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생산액 69조 3890억원(수출 300억달러)보다 13.5% 감소하

고 수출은 16.7%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산단 기업의 전체 생산과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줄었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기업들의 수익 호재의 주원인으로는 저유가에 따른 정제마진폭 확대와 에틸렌 등 수급개선 및 해외 경쟁업체의 설비증설 지연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원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정제 마진율이 크게 개선된 점도 수익률 증가에 주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생산 및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석유화학업계의 수익성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김평중 연구조사부

부장)도 국내 석유화학업계 경기 회복세는 올해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에틸렌비 가동에 따른 공급증가로 국내 석유화학업계 경기는 하락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중국과 인도 등 후발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며 중동과 미국의 약진 등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업계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업계 전문가들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고기능성 화학소재 개발, 원가 및 품질경쟁력 개선 노력 등 연구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구조적 재편과 신소재 및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한국산단공 여수지사는 이 같은 업계 상황을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첨단 화학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산단공도 여수산단 내 녹지해제 지역 공장증설 지원을 비롯한 여수산단 구조 고도화사업, 화학소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선 한국산단공단 여수지사장은 "전남 제조업 70% 정도를 차지하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산업은 규모의 경제, 연계효과 및 운영효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국과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미래위극 극복을 위한 고부가가치와 첨단 제품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내일러'들이 최근 여수시가 마련한 '2017 내일러 댄스페스티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수시 제공>

## '내일러' 발길 낭만과 젊음의 도시 여수로

### 댄스 페스티벌 500여명 찾아 매년 15만명 열차 타고 방문

### 내일러(Railer)

내일로 티켓을 이용해 전국을 여행하는 젊은이를 일컫는 말.

전국 '내일러'들의 발길이 낭만과 젊음의 도시 여수로 향하고 있다. 매년 15만명의 관광객이 철도 자유이용 티켓인 '내일로'를 이용해 여수를 찾고 있다.

여수시는 여수밤바다, 낭만버스커, 낭만포차와 같은 특별한 관광콘텐츠를 SNS를 통해 전파하는 등 젊은이들을 여수로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2017 내일러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전국에서 몰려든 젊은이들에게 낭만과 젊음의 도시 여수를 소개했다.

여수엑스포역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내일러'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여수여행 O/X 퀴즈, 기차

놀이 플래시몹, 내일러 장기자랑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내일러'는 열차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티켓으로 전국을 여행하는 젊은이들이다.

내일러들과 함께 페스티벌을 즐긴 주철현 여수시장은 "낭만의 도시 여수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24일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를 찾는 내일러에게 숙박시설 이용요금과 관광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세관 초등생 초청 세관 현장 체험 행사

여수세관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여수 웅천초등학교 학생 113명을 초청해 세관 현장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래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세관 행정을 직접 경험하고 직업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됐다.

세관의 역할과 업무 소개, 홍보 동영상 시청, 역사기록관 관람 및 소개, 세관공무원과의 대화시간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진행됐다.

손문갑 여수세관장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안전한 여수 만들기 여수경찰 치안 간담회

여수경찰서는 "지난 9일 경찰발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등 치안협력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시민이 안전한 치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 한 해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치안협력단체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참석자들은 "내실있는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짐했다.

이용석 여수경찰서장은 "경찰과 협력단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치안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디오션리조트 200명 '사랑나눔 헌혈' 훈훈

남해안 최대 종합휴양시설인 여수시 소호동 소재 디오션리조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에 나섰다. 13일 디오션리조트에 따르면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해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200여명의 전체 임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했다.

<사진>

이번 헌혈 행사는 최근 학생들의 겨울방학 등으로 겨울철 헌혈자가 크게 줄어 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접한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특히 임직원들은 헌혈을 마친 뒤 받은 헌혈증과 그동안 보관해온 헌혈증을 광주-전남 지역 내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치료하는데 보태달라며 전달해 귀감이 됐다.

유광현 디오션리조트 본부장은 "많은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사랑나눔을 몸소 실천해 뿌듯함을 느낀다"면서 "작은 실천으로 새 생명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만큼 헌혈 캠페인을 연중 행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어린이 행복다 동북아**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

**꿈꾸는 도시 DreamHub GUNSAN**